

전통적 문화요소에 바탕을 둔 미래의 도서지역 주거 모델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김지민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근대화 이전만 하더라도 민가는 그 지역의 삶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훌륭한 마을 공동체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농·어촌마을의 구조변화, 가령 토지 내지 해양생태계에의 생업의존 비율이 낮아지고, 또한 인구 감소와 함께 노년층의 증가, 그리고 문화를 이루는 다양한 계기의 발달 등으로 민가가 갖던 고유 속성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인간과 가장 하부적으로 밀착되어 발전을 거듭해온 초가형 목조민가는 이제 더 이상 현대적 편의성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농·어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주문화의 개발은 현실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서(섬)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경제성이 있는 가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1차)이다. 개발의 바탕은 도서지역의 전통적 문화요소에 바탕을 둔다. 해마다 많은 도서민이 육지로 이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서민의

정체성(identity)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주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는 과제로 생각한다.

본 과제와 함께 후속으로 이어질 2차 연구(모델 개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 ㉔ 전통적 측면 : 도서문화가 갖는 총체적인 전통성을 주거에서 계승, 발전시킨다.
- ㉕ 편의성 측면 : 미래의 산업사회에 걸맞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 영위
- ㉖ 경제적 측면 : 지역적 생산 시스템을 통해 건축비용의 절감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첫째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의 도서지방,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전체와 고흥군내의 일부 도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에는 한국 전체도서의 60%를 차지할 정도의 많은 도서가 있다. 이는 곧 한국전체 도서의 공통성 문제를 이 지역이 안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이 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기에 연구지역으로 최상의 가치가 있다.

㉗ 역사성.

이 지역 도서에는 과거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 이 논문은 1998년 목포대학교 기성회 연구소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거주해 왔음은 이미 고고학적 연구(지석묘, 패총 등의 발굴)을 통해서 밝혀졌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왜적의 침입으로 인해 여러 번 섬을 비우는 空島현상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새로운 入島祖에 의해 도서문화가 재생되는 역사의 순환성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주거문화의 단절과 연속성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다.

㉔ 민속의 보고지역.

대한민국 민속학자들은 진도를 가장 많이 찾는다. 이유는 변하지 않는 요소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고 아울러 독특한 문화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도서도 비슷하다. 주거에 있어서도 육지에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100년에서 20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즉 전통을 볼 수 있기에 미래의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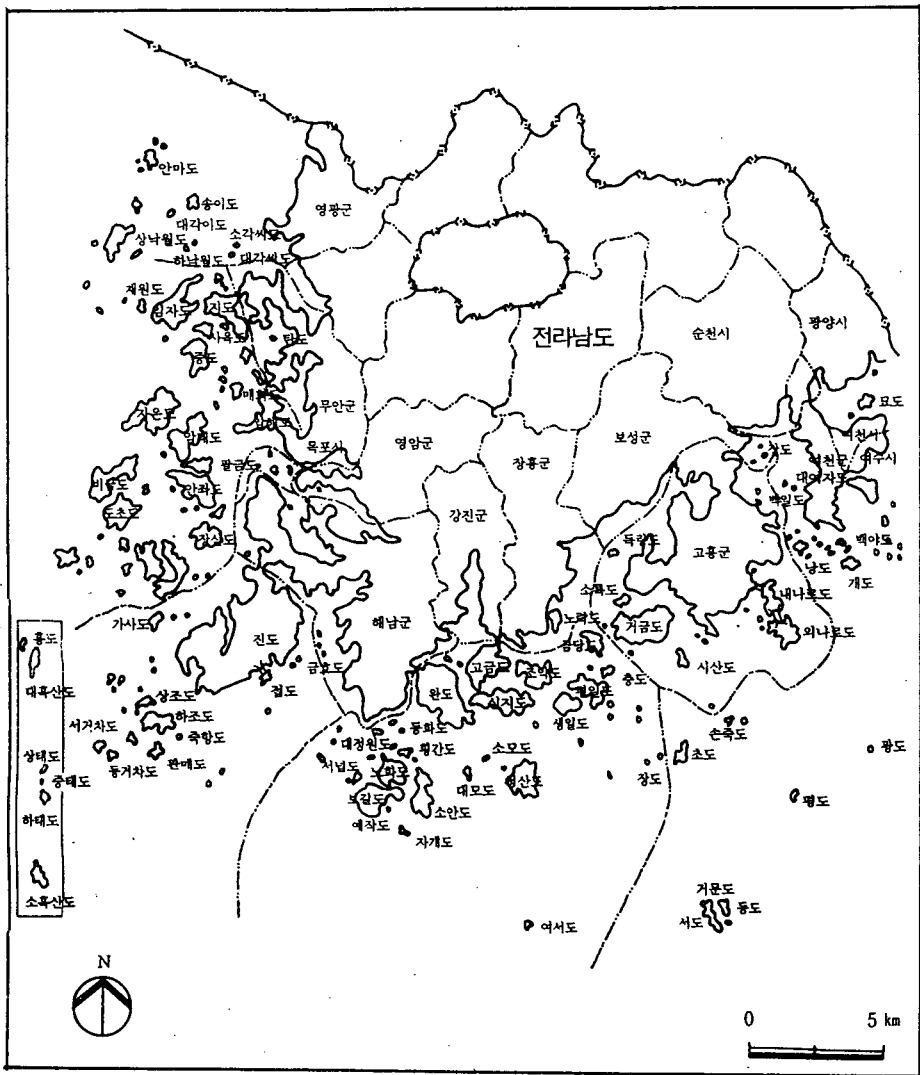


그림 1. 서남해 지역 도서현황

를 쉽게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주거문화는 지역성의 고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㉔ 소중한 해양 자원이 있다.

도서는 바다가 그들이 생명선이다. 생활자원의 획득은 물론 교통까지도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도서지방의 생명력은 해양생태계에 의존한 경제력의 활성화인데 이는 곧 거주환경 조성과의 관련이 된다. 즉 훌륭한 거주환경 조성은 도서라는 고립된 환경으로 극복하는 큰 기폭제가 된다.

둘째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도서지방에 사람이 들어와 살았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과거의 사회구조를 밝힌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타분야(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등)와의 학제간의 교류를 통해 시간적 영역의 차이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다.

- ㉕ 문헌조사 : 도서지역의 총체적인 문헌자료를 역사학, 민속학, 지리학, 경제사회학, 건축학, 조경학, 환경학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 ㉖ 통계조사 : 전통주택과 현대주택으로 나누어 그 용도, 구조, 규모, 형태별로 유형을 분류한다.
- ㉗ 설문조사 : 유형분류를 통하여 대표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유형과 각종자료와 본 연구자의 창의적인 이미지 제시로 작성된 몇 가지 주거문화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서민과 직접 접하는 이 방법은 비중이 큰 작업이다.
- ㉘ 현장조사 : 현지답사 및 사진촬영을 통하여 실제 도서주거문화를 체험한다.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아울러 각 유형별 주택 배치 및 구조 현황을 실측했다.

표1. 연구대상 주요 도서와 조사 가옥수

행정 구역	도서명	조사 가옥수		조사기간	
		전통 가옥	신축 가옥	전통 가옥	신축 가옥
전남 신안군	진도, 임자도, 사육도, 중도, 자은도, 팔금도, 기좌도, 비금도, 조초도, 하의도, 장산도, 상대도, 하태도, 대흑산도, 압해도	약 320호	약 20호	1986 ~ 1999	1997 ~ 1999
전남 진도군	진도, 상대도, 하태도 1991 ~ 1999	약 45호		1986	
전남 완도군	완도, 보길도, 청산도, 약산도, 소안도, 금당도, 고금도	약 150호	16호	1990 ~ 1999	1991 ~ 1999

(2) 연구 방법

도서지역의 이상적인 미래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취했다.

2. 전통과 도서성(insulaity) 측면에서 본 도서지역

도서지역의 이상적 주거모델 개발의 기반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사회적 여건은 물론 역사 문화적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서남해 도서지역의 기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총체적 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 역사와 문화

서남해 도서지역에는 패총, 지식묘 등의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선사유적이 발굴 조사되어²⁾ 아주 예로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거주유형은 내륙지방에서와 같은 수혈주거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사실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주거지는 아직 발굴 보고된 바가 없다.

2) 최성락, 「서남해 도서지방의 先史文化」 「도서문화」 제7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0.에 이 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에 서쪽 끝 먼바다에 위치한 흑산도에도 상당수의 주민이 살았음이 기록상에 나타나 있다. 즉 일본 승려 圓因의 「入唐求法巡禮行記」로 그의 당시(847년, 신라 문성왕 9년)여행기에 의하면 서남해 도서지역을 경유하는 가운데 흑도(흑산도)라는 섬 이름이 나오고 그곳에는 300 ~ 400호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과거 백제의 3왕자가 피난하여와 살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³⁾ 이 기록

을 통해 우리는 통일신라시대에도 적지 않은 주민이 섬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상당한 주거형태의 발전을 추측할 수 있다.

고려말기부터 서남해 도서지역은 큰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즉 이 지역이 갖는 역사적 위치와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왜구의 침탈지로 변하면서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내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의 전라도 나주목조에 의하면 왜구의 침입에 따라

표2. 조선후기 서남해 주요 도서의 호구수

도서명	여지도서(1759년)				호구총수(1789년)			
	호	구	남	여	호	구	남	여
팔금도	205	443	174	296	225	638	355	283
안창도	189	454	162	292	207	612	361	251
하의도	60	158	77	81	143	540	277	263
도초도	281	714	378	336	347	989	582	470
사치도	7	13	3	10	7	16	8	8
대야도	13	35	17	18	12	28	17	11
고하도	55	159	78	81	33	90	47	43
압해도	387	1341	680	661	459	1276	785	491
비금도	369	798	374	424	406	1512	847	665
지 도	824	2146	1141	1005	891	1734	957	777
장산도	224	620	295	325	223	577	312	265
자은도	420	812	493	319	426	1335	720	615
흑산도	283	705	361	344	350	920	530	390
홍의도	18	56	27	29	28	59	36	23
가가도	33	68	35	33	39	81	43	38
상저도	613	1975	913	1062	623	1973	983	990
하저도	862	2301	1140	1161	1019	2614	1203	1411
청산도	482	1352	591	761	490	1576	749	827
조약도					169	1309	511	798
신지도					581	1843	762	1081
완 도					449	1322	666	656
고금도					690	2145	1050	1095

3) 이혜준, 「신안 도서지역 문화의 역사적 배경」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87.에 이 지역의 해도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고려말기에 흑산도 사람들이 현재의 영산포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여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흑산도 이외에 長山島民의 나주 이주, 珍島民의 영암 이주 등 서남해 도서전체가 空島상태로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空島의 기간이 4~5세대, 150여 년에 걸친 오랜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도서지역 문화요소들은 많은 단절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초기에 들어 왜구의 격퇴와 국가 기반이 공고해지면서 어느 정도 도서에 대한 주민의 이주가 급속히 전개되었으나 이들은 入島 후 1~2세기도 못되어 임진왜란으로 인해 또 다시 섬을 비우게 되어 다시금 문화의 공백기를 맞게 되었다.

17·18세기에 이주민들은 섬에 집중적으로 유입하였다. 즉 16세기 말 전쟁으로 인해 유린된 流移民들이 정착지를 찾아 옮겨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섬에 유입한 것이다. 섬에 유입한 이주민들은 촌락을 형성하여 정착하게 되는데, 마을의 입지적 조건은 주로 포구, 경작지, 염전, 제방 설치가 가능한 곳이었다. 移住民들의 入島經路를 살펴보면, <남해 → 서해>로의 유입이 주된 경향이었고, 반대로 <서해 → 남해>로 유입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런 현상은 바닷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도서지방의 행정 관할지를 설정할 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서 이주민들은 해남·영암·강진·고흥·보성 등 沿海을 출발지 혹은 경유지로 하여 海路를 따라 섬으로 유입하였다. 이는 入島前 거주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주민들의 入島前 거주지는 해남이 26%로 가장 많았고, 강진 21%, 장흥 15%, 순이었다.⁴⁾

유이민들, 즉 이들은 사실상 현재의 도서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놓은 주역들이며, 현재 섬 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요소들은 바로 이들 이주민들이 그들의 전거지에서 이식시켜왔던

것을 섬의 환경에 맞게 발전 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낯선 땅에 처음 들어온 이들 입도조들은 모든 것이 여의치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살던 육지의 집을 본떠 집을 지었을 것이다.

18세기에는 비교적 상당수의 주민 정착이 이루어졌음이 문헌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요 섬의 호구수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2-2. 자연환경

서남해 도서는 전부 육지의 침강결과로 생긴 도서로서 지형은 대부분이 100m이하의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어 평지는 극히 적은 편이다. 즉 평지는 대부분이 해안선 일부에, 또는 해수면 매립지에 발달되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들이 적다는 것이다.

각 도서 주위에는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며 개펄이 넓게 펼쳐져서 경지, 염전, 양식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곳에 따라(특히 黑山島 등) 해수의 강한 침식으로 암벽이 해안선을 따라 나타나는 곳도 있다.

기후는 한반도의 대부분이 냉대 기후지역에 속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양성 온대기후권에 속하고 있다. 년 평균기온은 13.5℃, 평균 최고극값은 31.1℃, 평균 최저극값은 -8.38℃이며, 년평균 강수량은 1,175mm이다. 일조시간은 평균 2.101시간이며 평균 풍속은 4.1m/s이다. 이중 평균 풍속 4.1m/s는 전남 내륙지역(구례군)의 2.0m/s보다 2배이상 큰 것으로 결국 바람이 이 지역 민가구성의 큰 환경원인이 된다.

2-3. 사회 공간구조

(1) 도서의 기본 현황

우리 나라의 도서는 유인도 454개, 무인도 2,671개 등 총 3,125개이다. 이의 총 면적은 1,866.30km²로 국토의 1.9%를 점하고 있다. 인구는 217,444명이며 세대수는 77,702가구이다.

이중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유인도서의 58.3%, 인구의 60%, 면적의 63.7%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국 도서행정의 절대적인 비중을

4) 김경옥,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p132,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차지하고 있다.

유인도서의 수는 1974년 705개, 1984년 517개, 1994년 464개, 98년말 현재 454개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수 역시 전남의 경우 1985년 280,497명, 1990년 223,039명, 1994년 158,561명에서 1999년 현재 130,757명으로 1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반 이상으로 감소되었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 37.6%, 어업 17.4%, 농어업 겸업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농업이 전업인 가옥인 경우 주거 문제 연구시 내륙의 농가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도서라고 하는 자연환경과 그들 고유 삶의 방식이 문제가 될 뿐이다.

표3. 도서의 기본 현황

구분	도서수			인구	세대수	면적(km ²)
	계	유인도	무인도			
전남	1,954	265	1,689	130,757	46,208	1,188.02
전국	3,125	454	2,671	217,444	77,702	1,866.30
대비 (%)	62.5	58.3	63.2	60.1	59.5	63.7

※ '99도서현황(행정자치부, 연유도서 제외)

(2) 도서민의 定住性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계속 살고 싶은가에 대한 조사를 한바에 따르면 83.7%가 정주의사를 보이고 16.3%가 이주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다만 도서 가구수 규모와 도서의 유형에 따라 정주 및 이주 의사에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즉 가구수가 많은 도서일수록 정주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도서규모가 적을수록 이주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주 의사를 보인 주민들의 이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교통·문화시설의 불편과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손꼽고 있다. 한편 발전 전망이 없어서, 수입이 적어서 떠나고 싶다는 항목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생활의 편의성과 교육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개발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으로는 이러한 불만요인의 해소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만족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거 도서개발이라하면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건설, 전기사업,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구축으로만 생각해 왔다. 이제는 시각을 달리 할 때가 왔다. 도서만이 갖고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다양고 특색있는 민속문화, 풍부한 수산물 등 여러 자원을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도서지역의 주거유형

3-1. 신 주거문화 도입 이전의 주거

(1) 주거개념

전통이란 지속성을 지니면서 때론 가변성도 있는 문화유산이다. 변한다는 것은 발전도 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천년 동안 이 지역에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 고착된 목조 초가는 분명 전통성의 명분을 간직한 우리의 주거문화이다. 현재 서남해 도서지역에서는 건립시기가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무렵까지의 사이에 건립된 민가들을 볼 수 있다. 그 수는 내륙지방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러한 가옥들은 17세기를 전후한 이주민의 주거문화가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발전, 고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도 당시(17-8세기)의 주거형태에 대하여는 사실을 밝힐만한 현장은 물론 기록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상황(건축재료, 구조기술, 경제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현존하는 19세기의 건축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입도 전 그들의 전 거주지, 즉 인근 연안의 해남, 강

5) 전라남도 「도서개발전략」, 1996(도서민 741명에 대한 설문조사내용)

진지역의 주거환경과 비료해도 크게 열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현재 이 지역의 민가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지역 민가에 관여했던 문화인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러한 요소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게 될 주거의 규범에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 주거문화의 형성체계 - 입도조의 주거개념 + 도서성(Insularity)
- 경제, 생계활동- 전, 답에 의존한 영세농 + 해양생태계에 의존
- 신앙, 의식- 토속민간 신앙, 가신(성주신 등), 상량, 당제
- 사회관습- 유교적 사교(장자우위, 제사)
- 마을구조- 3-4성씨의 집성군집, 집락
- 가족구성- 대가족 제도(여러 세대가 한 가옥에서 공동체 생활)
- 기후- 해양성 온대기후
- 건축재료, 기술- 자급자족, 공동체 의식(협동)

한편 住居文化와 직접 관련된 것 중 특히 눈에 띄는 사항은 옥지에서 보기 드문 상량문의 기록이다. “道光”(1821~1850), “咸豐”(1851~1861), “同治”(1862~1874) 등의 중국 年號를 사용하여 상량문을 기입하였고 이보다 연대가 빠른 “嘉慶”(1796~1820)이란 年號를 사용한 가옥도 있다. 비록 열악한 도서환경속에서도 그들은 높은 住文化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주거의 기본구성

일반적으로 소농의 민가에 있어서는 상류주택과 달리 가족구성의 동질성, 경제 및 사회활동의 단순, 건축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부속채의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 기껏해야 별도로 행랑채와 측간채, 가축사 정도가 고작이다. 행랑채의 경우 지방에 따라 호칭(사랑채, 아래채, 부속채, 작은채, 바깥채)과 기능(수장, 작업+수장, 거주+수장+작업, 거주+수장+가축사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축의 본질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지역 민가의 대지 성격은 안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안채와 함께 그 중심에 위치하며 그 성격은 매우 개방적이다. 또한 안마당은 부속채나 출입구, 가축사 등의 위치를 결정하게도 한다. 이외 외부공간 구성은 안채 뒷편으로 협소한 공간과 대지 측면에 텃밭이 일구어지는 것이 거의 전부다. 즉 가능한 대지의 후면(안쪽)으로 안채를 앉혀 그 전면으로 마당을 넓게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행랑채가 들어섰을 경우도 반드시 안채 전면에 두지 않고 측면에 배치하여(두 건물이 트여진 직각형태) 역시 안마당 중심의 배치관계로 이끌어 나갔다. 안채 전면에 문간채 겸 부속채가 들어서는 ‘2자형’ 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1자형’ 배치 개념은 전남 도서지방 민가 배치의 기본 유형으로서 좁은 대지를 개방적 측면으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가에서 안채 다음으로 제 2의 건물은 행랑채이다. 독립된 별동으로 건립되는 이 건물은 안채처럼 반드시 건립되지는 않고 보통 안채 건립이후 가족수가 늘어나고 살림의 규모가 커질 때 지어진다. 따라서 가옥의 경제적 역량과 관계를 가진다. 호칭은 도서에 따라 행랑채, 사랑채 등으로 불리며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수장과 거주, 가축 사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랑채 구조는 방, 정지, 외양간이 들어선 3칸(3실)구조가 거의 일반적이다 외양정지는 작은방쪽으로 큰 술을 걸고 소 여물을 끓이는 곳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농기구, 땀감 등을 저장하기도 한다. 외양간에서는 소 1~2두가 사육되고있고 보통 외양정지 사이에 여물통을 두고 있다.

방 하나는 자녀들이 쓰거나 또는 큰 아들이 결혼하여 그 내외가 쓰기도 한다. 이유는 동생들이 많이 기거하는 안채보다는 별도의 건물에서 성숙한 장자의 위치를 확보해 주는 의미도 있었고 아울러 외양간 관리 등 쉽게 집안 살림

을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행랑채의 건립이 어려울 경우는 안채의 작은방에서 장남 부부가 기거하기도 하였다. 결혼한 자녀가 많아 안채의 작은방과 행랑채 방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할 경우는 분가가 시작됐는데 이때 능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별도의 가옥(신축 또는 매입)으로 이주 시켰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른 가옥의 방을 하나빌려 '겹방살이'를 시켰다.

(3) 평면 구성의 체계

건축의 기본이 되고 각 지역별 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평면구성은 전통민가연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지역 민가의 안채(본채) 평면구조를 실 구성 중심으로 유형화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두가 一자형 홑집계통으로 개방형 평면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전면으로 뒷마루가 놓여진다.

① 一자형 3실 형식으로 정지, 안방, 마루가 시설되기도 하고 마루없이 土房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가옥은 경제적으로 소농가가 많고 또한 구조도 열악한 편이다(죽담

구조). <그림 2>의 가옥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가옥은 1797년에 건립된 가옥이다. 필자가 상량문으로 확인한 가옥 중에서 제일 오래된 가옥이다. 이러한 유형의 가옥은 조사 가옥중 10%미만 정도로 보이나 마을 노인들의 고증에 의하면 과거에 많은 수가 있었다고 한다.

② 마래, 안방, 정지, 모방의 4실로 이루어진 <그림 3>의 가옥과 같은 유형이다. 이 경우 모방(간혹 지역에 따라 “작은방”이라고도 부름)이 전면의 退柱線보다 약 1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一자형 평면이지만 ㄱ자형을 연상케 한다. 안방, 정지, 모방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집중)되어 있고 서로의 동선도 짧다. 서남해 도서지역 중에서 특히 서해쪽인 신안군 지역에 이러한 유형이 특히 많이 보인다(약 60%정도). 이러한 유형은 남서해 도서지방의 민가 평면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패턴이다. 그러나 먼 바다에 위치한 흑산도지역과 남해상의 청산·소안도 등 완도군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특히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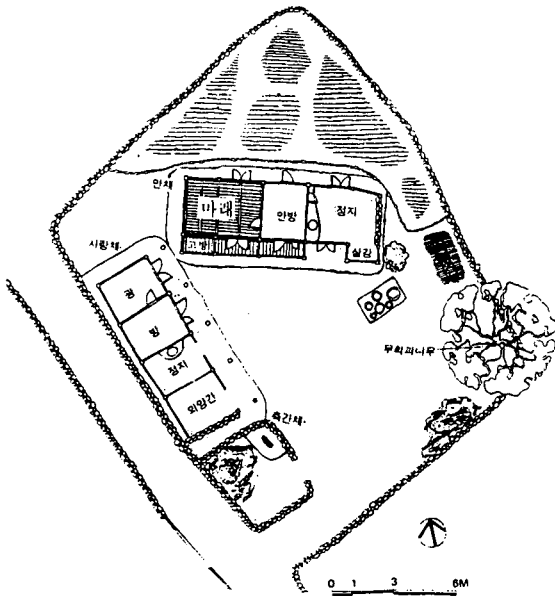


그림 2. 하의도 대리 박씨가옥 배치도(“嘉慶二年 丁巳七月” 상량문, 17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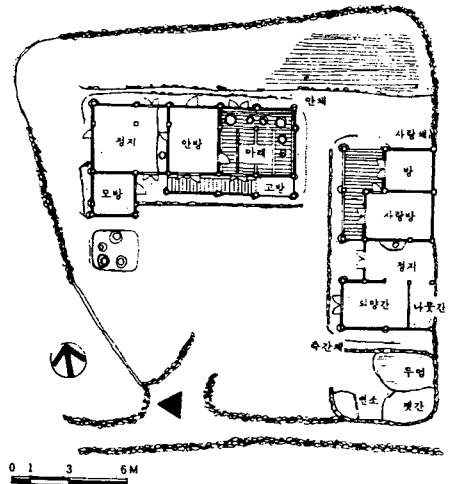


그림 3. 상해도 상태동리 김씨가옥 배치도(“成豐元年 辛亥二月” 상량문, 1851년) 안채의 경우 정지와 마래가 각각 2칸으로 전체로 보아 5칸 구성이다. 이 집의 경우 사랑채 규모가 다른 가옥보다 다소 크다.

③ <그림 3>의 가옥과 유사한 구조나 모방이 정지 안쪽으로 반쯤 침투되어 있어 완전한 一자형을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지공간이 축소되는 반면 구조적으로는 단순화되고 있다. 출입문은 정지 안쪽에 있지 않고 前退부분의 안방쪽 가까이에 있다. 모방 뒤쪽으로는 빨감 등이 놓여지는 정지헛간(광)이나 외양간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외양간이 올 경우 정지와 벽으로 막혀지는 가옥도 일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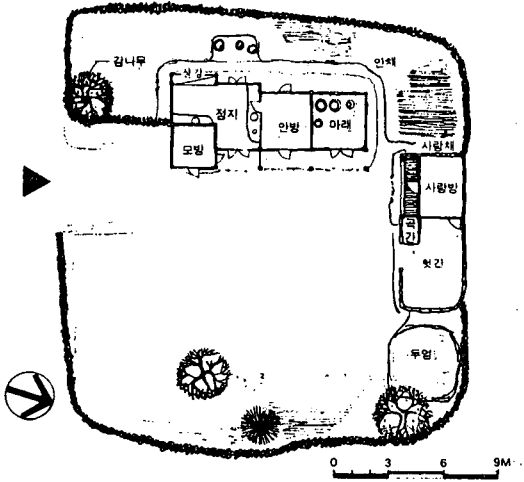


그림 4. 압태도 와촌리 손씨가옥 배치도 (道光十四辛卯九月) 상량문, 년호와 干支가 일치하지 않으나 신묘년을 기준으로 보면 1831년 건립)

④ 그림 3의 가옥 구조에 정지와 모방 측면으로 외양간(헛간)과 갓방이 겹집형식으로 추가되어 室이 4室에서 6室으로 늘어나는 형식이다. 간혹 외양간이 전면에 오기도 한다. 아래의 경우도 칸수로 보면 2칸이고, 방도 행랑채까지 하면 4실이 된다. 즉 비교적 경계 규모가 큰 중농가일수록 이러한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 조사 가옥중 약 20% 정도가 보이며 역시 흑산도지역과 남해도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흑산도의 경우는 주로 농경지가 적어 가옥의 규모도 다른 도서에 비해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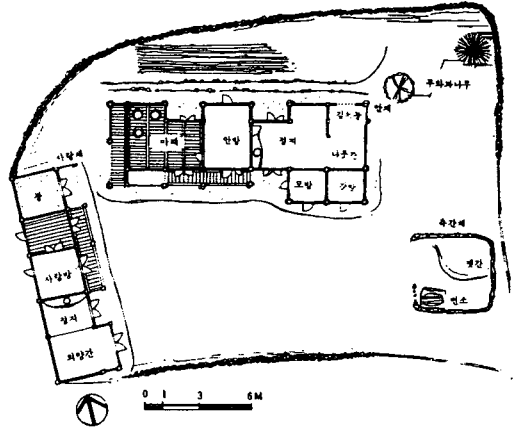


그림 5. 안좌도 대리 정씨가옥 배치도 (道光貳拾九年己酉二月, 상량, 1849년)

⑤ 모방을 정지 전면에 두지 않고 측면에 배치한 역시 4室 구조의 一자형 형식이다. 그림 3의 가옥과 달리 모방의 독립성이 강하다. 출입도 전면의 뒷마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흑산도지역과 청산·보길도 등 남해상의 가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기타 도서에서는 간혹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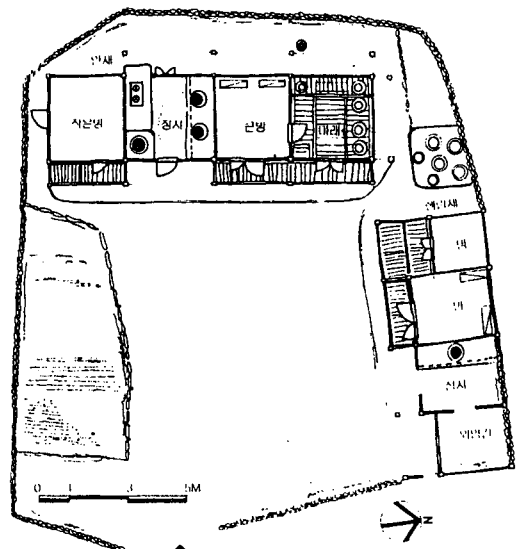


그림 6. 청산도 당리 최씨가옥 배치도 (同治六年丁卯十一月) 상량문, 1867년)

3-2. 신 주거 문화

(1) 새로운 주거문화의 유입

서남해 도서지역 민가는 개략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의 시작과 함께 전통의 모습을 크게 벗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화에 반응이 없었던 도서 민가에 충격에 가까울 정도의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민가들은 우선 외관상으로 지붕개량이 이루어져 초가에서 함석이나 스테이트로 개량이 되고 이와 함께 낡은 부재(기둥, 서까래 등)가 부분적으로 교체되고 창호 등도 개수되었다. 아울러 창고 신축, 담장 보수, 마을길 포장 등 집과 마을 전체가 오랜 전통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륙 지방보다는 그 문화의 교대가 쉽지 않아 기간이 오래 걸렸고 고가를 헐고 새로 짓는 신축의 경우는 1980년대어나 들어서 몇몇 가옥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많은 마을에서 주택신축이나 개량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도로포장, 전기나 가스의 적극적 이용, 주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신축의 동기는 ①옛집의 노후로 더 이상 개수가 불가능 ②주생활의 개선 ③가족구성의 변화, 즉 노부모만 거처 하므로 옛집의 경우 유지 관리가 어렵고 편의성을 추구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사항이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는 1차적 동기가 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차적으로 경제력이다.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신축의 절대적 계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남해 도서의 경우 신축가옥이 한 마을당 몇집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택의 시공은 외지에서 온 소위 건축업자라고 불리우는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친척과 협력하여 건축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규정된 면허를 가진 기술자가 아닌 단순히 경험으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설계역시 그들이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기존의 목조주택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신축한 완도의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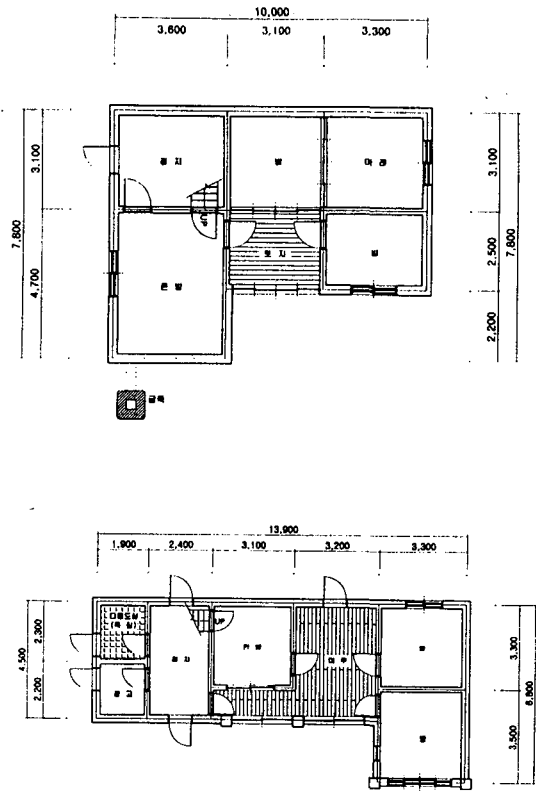


그림 7. 8, 두 그림은 1981년 (위)과 1979년 (아래)에 완도에 지은 신축가옥 평면도이다. 두 가옥 모두 새마을 운동 당시 시범주택 형식으로 정부 융자지원 하에 지어졌다. (설계 - 표준설계도, 자재 - 규격화된 관급물품) 당시 마을 사람들은 이런 집을 "이태리식 집"이라고 불렀는데 지붕을 경사지게 처리한 모양에서 연유한 것 같다. 마래, 마루(대청), 토지(이 지역 전통민가의 전면 퇴간부분, 뒷마루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도 토지라 한다. 이 집을 지을 당시 거실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옛 가옥의 뒷마루를 연상하여 지금까지도 "토지"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경사지붕 설치 등 상당히 전통적인 주거문화 요소의 계승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가옥은 더 이상 도서지방에 건립되지 않고 있다.

문화는 분명 새로운 시도였고 동시에 미래의 주거문화(Host Culture)가 자리를 내주고 오히려 새로운 유입문화 (Migrant Culture)가 자리를 차지한 셈이 되었다. 사실 그 내용은 다른

사회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큰 충격이 없었을지 모르나 건축의 구조 측면에서는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과거 전통가옥에서 있었던 협동심 등 주 문화가 갖는 마을의 공동체 의식도 사라지게 되었다.

(2) 주거형태

주거형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혹은 어느 하나의 우연한 요소의 결과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본 포괄적인 범위의 사회문화 요소의 산물이다.

어떤 그후, 유용한 재료 및 기술 수준의 한계와 능력이 이미 주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결정하고 공간과 그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이상적인 생활에 관해 갖고 있는 미래상이다. 추구된 환경은 종교적인 신념, 가족과 그 일가의 구성, 사회조직, 생계영위 수단, 개인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힘들을 반영해 준다.6)

근래에 들어 서남해 도서지역에 지어지는 주거형태는 20세기말에 시도된 이 시대 사회문화 요소의 새로운 산물임에 틀림없다. 과거 전통주거와 비교해 볼 때 형태는 물론 내부공간의 기능과 구성까지도 충격적이다.

신축주거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 장방형 평면에 구조는 조적조 평지붕(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다. 내부 평면구성은 거실을 중앙에 두고 그 좌우로 안방과 작은방,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은 보통 뒤쪽에 두고 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하나의 공간내에 엮여지는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이후까지 줄곧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주거문화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거실은 홀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독립성이 매우 약하고 전통주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마래(안방)는 다용도실이란 명칭으로 기능이 많이 축소되거나 달라진 채 부엌 한쪽편에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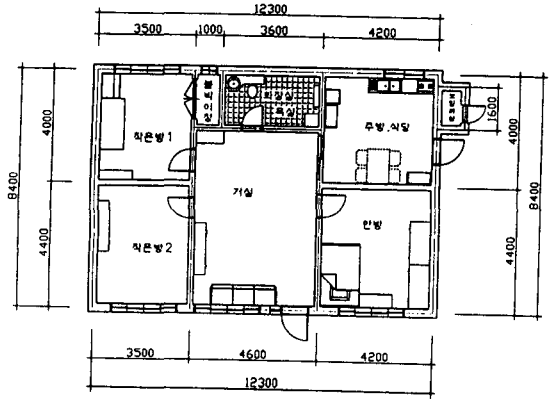


그림 9. <표3>의 1번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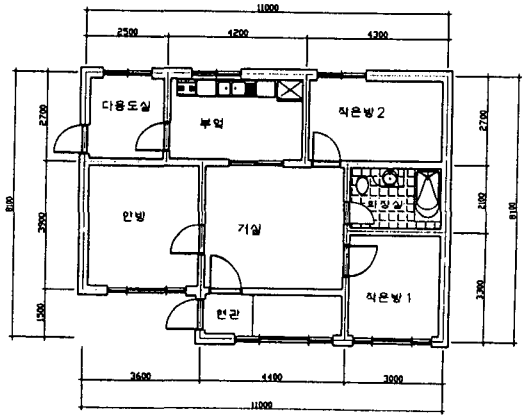


그림 10. <표3>의 6번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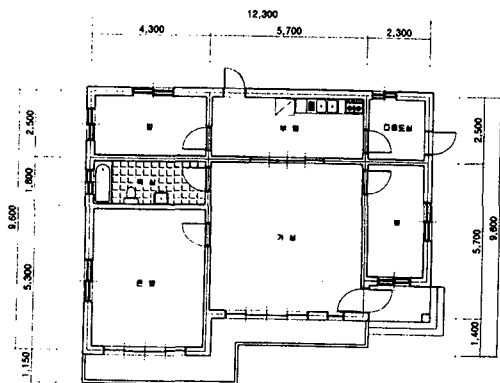


그림 11. 최씨 가옥 안채 평면도(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210) 1997년에 집주인이 마을 건축기술자와 협력하여 지은 집이다. 수산업과 농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부부, 딸1(고등), 아들2(초등) 등 5인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6) 아모스 라포포트(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p.73. 열화당, 1985

표 3. 서남해 도서지역 주요 신축주거 건축개황

가 옥 번 호	소재지	건립 연도	대지 면적 (평)	건물 구성	설계	시공	가족구성		생업	건축구조	지붕 형태	건축 면적
							건립 당시	현재				
1	신안군 압해 면 학교리415	1999		본채, 해랑채	집안 친척	집안친척	6명	3명(할머니 .자녀)	농업	조적조, 치장벽돌	맞배	103.3㎡ (31.3평)
2	신안군 압해 면 학교리371	1995	370	본채, 창고, 헛간	주인	주인 + 마 을사람	7명	3명(할머니 부부)	농업	조적조, 치장벽돌	평 스라브	84.9㎡ (25.7평)
3	신안군 압해 면 북용리340	1998	190	본채	건축 업자	건축업자	3명	3명(부부, 자녀)	축산업 (양계)	조적조	평 스라브	68.8㎡ (20.8평)
4	신안군 압해 면 북용리926	1996		본채, 창고(2)	건축 업자	건축 업자	7명	5명(조부모 부모,자녀)	농업+ 과수업	조적조	평 스라브	93.9㎡ (28.5평)
5	신안군 압해 면 신용리 242-7	1998	190	본채, 창 고, 외부 화장실	건축 업자	건축 업자	6명	6명(할머니 부부,자녀3)	농업+상 업	조적조	평 스라브	100.1㎡ (30.3평)
6	신안군 압해 면 동서리	1993	200	본채, 창고	건축 업자	건축 업자	이주	3명 (할머 니, 부부)	농업	조적조	평 스라브	79.4㎡ (24.1평)
7	신안군 압해 면 신장리131	1981	210	본채, 창고	건축 업자	건축 업자	8명	4명(할머니 부부,자녀)	농업+ 과수업	조적조, 타일마감	평 스라브	78㎡ (23.6평)
8	완도군 금당 면 삼산리462	1995	약150	본채, 창고	집안 친척	집안친척	6명	6명(부부, 노부모)	농업+ 수산업	조적조, 치장벽돌	평 스라브	99㎡ (30평)
9	완도군 금당 면 삼산면659	1999	약70	본채	설계 사무소	가족	2명	2명(부부)	수산업	조적조, 치장벽돌	평 스라브	74.4㎡ (22.5평)
10	완도군 청산 면 602	1986	191	본채, 창고	건축업 자+주인	건축업 자+주인	6명		농업	조적조, 타일마감	평 스라브	40.5㎡ (12.3평)
11	완도군 청산 면 458	1987	120	본채, 창고	건축업 자+주인	건축업 자+주인	5명		농업	조적조, 타일마감	평 스라브	64.9㎡ (19.7평)
12	완도군 청산 면 480	1990	170	본채, 창고	건축업 자+주인	건축업 자+주인	6명		농업	조적조, 치장벽돌	평 스라브	65.5㎡ (19.6평)
13	완도군 약산 면 해동리	1986		본채	주인	직영	5명	2명 (부부)	수산업	조적조, 타일마감	평 스라브	72.2㎡ (21.9평)
14	완도군 약산 면 상득암리	1994		본채, 창고	주인	직영			농업	조적조, 치장벽돌	평 스라브	81.3㎡ (24.6평)
15	완도군 완도 읍 정도리 570-3	1979		본채	표준 설계도 (정부)	정부	6명	2명(부부)	농업	조적조, 페인트마 감	박공 지붕	70.1㎡ (21.2평)
16	완도군 군외 면 대문리556	1981		본채	표준 설계도 (정부)	정부	8명	3명(할머니 부부)	농업	조적조, 페인트 마감	박공 지붕	63.9㎡ (19.4평)
17	완도군 군외 면 대문리 158-2	1994		본채, 창고	주인	직영	6명	5명(할머니 부부,자녀1)	수산업	조적조, 치장벽돌	평 슬라브	111.7㎡ (21.7평)

구조는 벽돌 내지 블록으로 쌓는 조적식구조이며 외부마감은 타일이나 치장벽돌 또는 몰탈 위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대부분 공사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슬라브 지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한편으로 곡물이나 빨래 건조를 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4. 지속성이 있는 개발 가능한 주거요소

4-1. 개념정립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과 개성(전통)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도서지역 주거의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은 바로 이러한 지역적인 개성과 특징을 재발견하고 실현시키려는데 두어져야 하며, 전승된 문화자료들은 바로 이같은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민가를 건축적인 양식, 건축적인 공간으로 다루는 건축예술사 내지 양식사 측면에서만 접근해 왔지 이를 문화자원으로 인식하여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본 주제에 적절한 연구를 하기 위해 전통성과 도서성을 바탕으로 이 지역 민가가 갖고 있는 문화인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역사 지리학적 문제의 접근이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달리 독특한 역사성과 함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주거문화와 매우 연관이 있는 분야이다.

둘째는 도서지역만의 사회상 파악의 문제이다. 주거문제는 결국 사용자의 경제, 교육, 문화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학적 접근 역시 중요한 분야이다.

셋째는 민속학적으로 도서마을에 산재해 있는 민간 신앙, 민속놀이 등을 조사하여 이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을 추적하여 관리형태, 이용 계층, 규모와 위치, 아울러 도서마을 공동체 부락으로서

의 복합적 기능 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은 어떤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넷째는 현재 남아있는 전통주택의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건축적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다섯째는 새마을 운동이후 지어진 소위 현대식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주거 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그리고 현재의 장점과 단점 등의 문제를 체크한다.

4-2. 지속 가능한 주거요소 사례

전통요소를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현대건축에 도입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전통은 연속성이 있는 새로운 문화인자로 인식할 때 특히 주거건축에서는 개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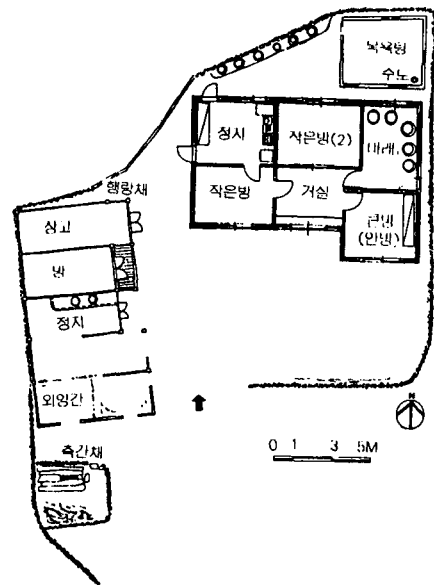


그림 12. 1987년에 지은(안채) 청산도 당리마을 가옥 배치도. 이 무렵에 새로 지은 이 마을의 가옥에는 모두 “마래”가 있다. 이 공간은 기능이나 동선상 <그림 11> 가옥의 대응도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음은 전통주거의 “마래”라는 공간을 사례로 본 것이다.

“마래”, “마리”, “말래”등으로 호칭되는 사실은 서남해 도서지역의 핵심이 되는 도서민의 생명력과 응집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마래는 가옥에서 항상 머리쪽에 위치한다. 그 윗쪽으로는 어떠한 실도 들어서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전남의 서남해(신안군, 진도군, 완도군등)도서에서 모두 같다. 즉 작은방 하나가 더 드러지는 경우 가옥의 확장이 정지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젊은이들이 거쳐하는 방이 마래가 있는 머리부분(윗쪽)에 놓이면 위계상(상, 하의 공간적 질서)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극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불을 다루는 문제인데 즉 정지 옆에 두는 것이 큰방과 함께 아궁이 처리가 집중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 실의 용도는 외형적으로 수장의 기능을 갖는다. 수장 형태는 1년 알곡식이 크고 작은 독에 담겨져 큰 독은 아래로, 작은 독은 그 위로하여 벽선에 따라 놓여진다.(하의도 대리마을 어느 가옥의 큰 독은 중앙부 직경이 70cm, 높이가 99cm이다.) 이와 각종 집안 살림도구(바구니, 상, 돛자리, 그릇등)도 보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래는 한 가정의 정신적 지주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보통 3대조까지의 신위를 모셔두고 제례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위는 정면 출입구 맞은편 벽상부에 감실장을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고 감실장 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상자를 선반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이는 사당을 별도로 건립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형편에서 마래방을 제사공간으로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다.

마래 상부의 상량위에는 집의 수호신인 성주가 모셔져 있다. 작은 대나무 가지에 한지를 접어 꿰어달고 또 거기에 마른 명태를 달아 놓기도 한다. 새로 집을 지었거나 또는 새로 이사했을 때 이 성주신을 모셔야만이 집안이 순

탄하고 풍요로워진다. 이 성주신을 모시는 의례가 곧 “성주 올리기”라는 곳이다. 이런 의례는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세계관이 얽힌 문화공간임을 보여준다.

최근의 신축가옥에서도 “마래”가 보여 주목된다. 특히 청산도와 약산도의 경우 많이 보인다. 아직도 곡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고 제사도 이곳에서 모신다고 한다. 아무리 현대식 개념의 주거라 해도 전통적 문화요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 문화의 연속성이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압해도나 기타 많은 도서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변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도서문화 계승의 차원에서 도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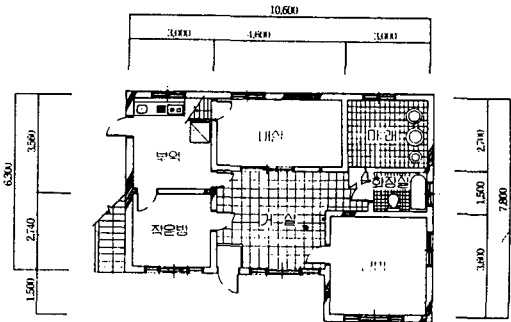


그림 13. 조상대대로 거주해온 옛집(목조초가, 4칸)을 헐고 그 자리에 1986년에 새로 지은 주택 평면도. (약산도 해동리)

5. 결론

전통문화를 현대적 관점으로 옮겨야 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지닌 의미의 올바른 해석이다. 그럴 때, 기초자료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가치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이 선입관 없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지방의 이상적인 주거모델 개발에 앞서

실증적인 과거와 현재의 주거형태에 대한 자료 수집(기초연구)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러 형태와 채널로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하에 출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도서문화가 외부지역에서 이주된 문화임을 전제로 하면 서남해 도서지역의 주거문화는 1차로 17-18세기 이후 새로운 入島祖들에 의해, 島嶼性(Insularity)에 맞게 재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2차로 20세기 후반 산업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주거형태로 탈바꿈하였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2) 신주거문화 도입 이전의 주거(전통민가)는 入島祖 이후 도서지방의 여러 환경에 맞게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해온 완성형의 민가이다. 도서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큰방’, ‘작은방(모방)’, ‘정지’, ‘마래’라는 기본 4개의 실이 “一자형”의 개방된 구조로 꾸며져 있다. 기타 부속채(행랑채)는 안채 전면 우측내지는 좌측에 안채와 함께 튼 “一자형”으로 들어서있다. 이 건물은 보통 3칸 구조로 방 하나에 외양간, 외양정지(헛간)로 구성되어 있다.

3) 임란이후 새로운 入島祖에 의해 형성된 도서지역의 주거문화는 개략 1970-80년대까지 큰 변화없이 마래, 큰방, 정지, 모방이라는 내부공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시의 삶을 수용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지어지는 새로운 가옥에는 전통의 모든 요소는 사실상 단절됐고 격리와 보수의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島嶼性”도 신축주거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소위 “스라브 집”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주거 형태는 최근 내륙의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층에서는 하나의 규범으로 이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거형태는 우리의 정서(전통, 자연환경)가 배제된, 산업화 과정에서 맹목

적으로 받아들여진 주거 형태로 여겨진다. 서남해 도서지역도 거의 90%이상이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스라브 집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4) 신축 주거의 평면형은 단순한 장방형으로 향과 관계없이 전면 중앙에 현관을 두고 중앙에 홀 형식으로 거실을 두었다. 기타 입식 부엌, 화장실, 안방, 작은방 1-2개 등이 거실 좌우와 뒤쪽에 적절히 위치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①실로서 거실의 독립성이 전혀 안 되어 있고 ②필요 이상으로 실이 큰 것이 많고(화장실, 방 등) ③동선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으며 ④과거 전통주거에서 보이던 “마래”같은 수장공간이 없거나 있어도 적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⑤외부공간(마당)과의 연계가 안되는 지극히 폐쇄적인 도시형으로 되어 있다. ⑥특히 부엌공간의 설계 미숙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이 힘들게 되어 있다.

구조는 블록이나 시멘트 벽돌을 이용한 조적식 구조다. 외부마감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페인트마감, 타일 붙임, 붉은벽돌 치장 등으로 외부를 꾸미고 있다. 난방은 바다 히팅으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한다.

5) 청산도와 약산도 등지에서 보이는 신축주택에 “마래”공간의 전승은 이 지역의 독특한 주거문화(저장+조상숭배)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주거요소이다. 또한 온화한 이 지역의 기후를 감안할 때 전통주거의 “退”공간, 안채와 행랑채가 이루는 아늑한 외부공간(마당)등도 지속 가능한 이 지역 주거문화 요소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1. 아모스 라포포트(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2. 로저 키징(전경수 역), 현대문화인류학, 현암사, 1989

3. 마을유래지 편찬위원회, 완도군 마을유래지, 완도군, 1987
4. 신순호 외, 한국 도서백서, 내무부, 1996
5. 이해준, 신안 도서지역의 역사문화적 성격, 목포대 「도서문화」 제7집, 1990
6. 김지민, 한국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마을, 목포대 박물관 학술총서 제17책, 1990
7. 김지민, 19세기 이후 청산도 민가의 시대적 변천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목포대 「도서문화」 제9집, 1991
8. 김지민, 19세기 한국 남서해 도서지역 민가의 유형적 체계, 한국 건축역사학회 논문집 제 1집, 1992
9. 김지민, 19세기 소안도 민가의 사회적 적응과 건축성격, 목포대 「도서문화」 제11집, 1993
10. 김지민, 조약도의 마을구조와 민가, 목포대 「도서문화」 제11집, 1993
11. 김지민, 전통성과 근대성 수용측면에서 본 莞島의 민가, 목포대 「도서문화」 제16집, 1998
12. 김경옥, 「조선후기 서남해 도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서정책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13. 박재순, 「전남도의 도서관련 정책과 포괄적 접근방안」, 「한국도서연구」 제10집, 1999

The basic study about the modeling development of dwelling house of islands in the future based on the factor of traditional culture.

Kim, Ji-min

(Mokpo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paper is an architectural paper which has been studied about dwelling form and culture in southwestern island area of Korea from 18C up to now.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in new modeling development of dwelling house.

This area had less cultural interchange than inland area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s. Therefore, so far, many traditional factors have been handed down and especially, a good many commoner's traditional houses exist.

The traditional houses is composed of Anchaе (a central house), Sarangchae (an attached house of Anchaе). Sometimes, Sarangchae was omitt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 of the house.

Generally, the form of arrangement of house is divided into two shapes; One is '—' shape which has only Anchaе and the other is 'ㄱ' shape which has Anchaе and Sarangchae.

Approximately, since 1970's, new type of house has been built in this area. Usually, Inside this house are living room, kitchen, toilet, utility and 3 rooms. Wall is made of brick and roof is made of concrete's slab.

We can not find the traditional culture in this type of houses. The house in the future, the factors of culture and the convenience of the present age have to be coexisted.